

우리나라 農村指導事業의 發展的 課題

— 특히 國際的 次元을 中心으로 —

王 仁 權*

<目 次>

- I. 머리 말
- II. 農村指導事業의 重要性和 基本性格
- III. 發展的인 農業, 農業者, 農村, 그리고 農村指導事業
- IV. 農村指導事業의 國際的 展開
- V. 맺 음 말

I. 머리 말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農村指導事業」으로 固着되고 制度化된 農業技術移轉事業, 다시 말하면, 企劃的 農村社會變動計劃(planned social change program)은 원래가 美國의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CES”을 源泉으로 한 國際技術移轉(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이 適應化된 產物이다. 우리의 경우는 “農業”指導事業이 아닌 “農村”指導事業임으로 이미 含意되어 있는 것인데 美國의 경우는 원래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in Agriculture and Home Economics”를 줄인 것이 된다. 역시 美國으로 부터 國際技術移轉된 것인 日本의 “普及改良事業”도 실제로는 “農業과 生活改善面의 普及改良事業”을 줄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國內적으로 制度化된 農業技術 또는 農村技術의 移轉事業인 것이다.

이와 같은 農村指導事業이 非正規의이며 實踐的이고 教育學的 性格을 本質的 屬性으로 한다는 점에서 異論이 있을 수는 없으나 排他的으로 教育學分野의 研究分析의 對象 또는 領域이라고 보는 견해는 정확한 것이 못된다. 農業者와 그의 家族成員을 주된 顧客(clients)으로 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知識, 態度 그리고 行動面의 變化의 促進을 기속으로 하는 企劃的 社會變動을 기함으로써 行動科學 諸分科, 그중에서도 특히 社會學的인 研究分析對象으로 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世界的으로 가장 定評이 나있는 美國農村社會學會인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農經濟學科 教授

“Rural Sociological Society: RSS”에서는 이를 主要 下位分野로서 “農村指導社會學”이라는 이른바 “Extension Sociology”로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農村指導事業 또는 農村指導學은 單一學問分科의인 固有의 領域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나 다른 單一學問分科와 마찬가지로 應用科學的이며 學際的 또는 多學問的인 接近에 크게 依存하게 마련이다. 다만 이와 같은 學際性(interdisciplinarity) 또는 多學問性(multidisciplinarity)이 유달리 두드러진 것이 農村指導事業 또는 農村指導學이라고 볼 수가 있다. 가령 “社會教育”(social education)이라는 概念과 用語도 聯關的으로 많이 쓰이나 이는 教育學의 한 分科에 불과하며, “發展 커뮤니케이션”(development communication)이라는 것도 기실은 있어서 “新聞放送學”이라고 일컫는 “journalism”의 한 下位分野이다. “地域社會開發事業”이라고 전통적으로 칭하고 있는 “community development”는 “地域社會” 즉, “community”의 研究分析의 外延的인 것으로 社會學 또는 農村社會學의 두드러진 下位分野이다. 만약에 農業技術移轉의 制度化된 現象形態인 農村指導事業이 비록 逆說의 假定이지만 “實踐性” 또는 “實地問題性”을 상대적으로 덜 지닌 것이라고 하면 農村指導學도 덜 挑戰的인 것이 된다. 또 가장 聯關的인 單一學問分科(disciplines)인 “農村社會學”(rural sociology)이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學科로서 制度化되어 있다면 문제는 또 달라지게 된다.

農業技術移轉事業 또는 農村指導事業, 즉 農村指導學의 본고장인 高度産業化의 美國을 보면, 주로 (i) 農業教育學者, (ii) 農村社會學者, 그리고 (iii) 農業經濟學者들이 農村指導事業에 주된 關心을 보이고 있다. 日本의 경우를 보건대 正統的인 農業教育學 專門家 이전에 農業經濟學者들이 크나큰 關心을 기울여 活動하여 왔다. 이와 같은 傾向은 우리나라에서도 農業教育學科가 없는 農科大學에서는 農村社會學科도 없으므로 農業經濟學科에 農村指導에 관한 講座가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講座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開設運營한 서울大學校 農科大學의 경우도 後發的으로 農業教育學科가 創設될 때까지 상당기간동안 農業經濟學科에서 講義·研究가 관장되어 왔었다. 이와 같은 瞥見 또는 一瞥은 應用的인 屬性을 本質로 하는 農業社會科學(agricultural social sciences)의 한 構成分科로서의 農村指導學 또는 農村指導事業論의 두드러진 特殊個別性을 강조하려는 데 그의 目的이 있다. 다시 말하면 教育學的인 屬性만을 排他的으로, 그리고 지나치게 내세우는 것은 분명히 問題가 있는 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諸與件下에서 더욱 더 그러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하면 農村指導學 또는 農村指導事業에 관한 分析研究는 그의 單一學問分科性의 定立을 學際性 또는 多學問性과의 聯關에서 보아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

음을 直視하여야만 한다.

이상과 같은 脈絡에서 상당정도로 含意 또는 示唆된 바가 있을 것이지만 점차적으로 産業社會에 進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주지하다시피 모든 面에서 크나큰 變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農業, 農業者, 그리고 農村地域도 당연히 크나큰 變動의 過程에 있다. 따라서 당연히 農村指導事業도 發展的 變換의 課題를 안고 있다. 經濟는 先進이나 政治는 後進이라고 통속적으로 評價되고 있는 우리는 民主化的 또는 民主發展的인 政治가 중심이 되는 社會開發(social development)의 基本指向 또는 國家發展的 定向의 基本틀이 잡혀 가고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農村指導事業은 産業社會進入에 따른 고통스러우며 또한 非友好的인 適應壓力下에 縮小産業으로서의 農業, 그리고 農業者 및 農村地域을 對象으로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어려운 課題를 안고 있는데 여기에 福祉社會的이며 民主發展的인 轉換期의 열망과 期待가 조금하게 느껴질 정도로 평만되고 또한 분출되고 있음으로써 더욱 挑戰的으로 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國內的 課題와 더불어 國際社會에서 특히 農業基盤이 열악한 대다수 後發的 開發國을 위하여 農業技術을 移轉供與하는 의무와 責務도 함께 지니고 있는 우리들이다.

본 소고는 産業社會進入에 따른 우리나라 農村指導事業의 發展的 進化的 課題를 一般的으로 吟味하는 데 기본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農村指導事業의 發展的 課題를 그의 機能 또는 課題面에서 投射하는 노력이다. 보다 정확히 따진다면 機能, 다시 말하면 存在理由가 適法化되면 이에 따라서 보다 具體的인 課題가 導出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農村指導事業의 事業內容 또는 事業範圍를 總合的으로 概念짓는 것이 機能 또는 課題인 셈이다. 지나치게 高次的 또는 巨視的인 次元의 것도 아니고 또한 지나치게 낮은 次元, 다시 말하면 粗經驗的인 것도 아닌 中間範圍論(middlerange theories)의 接近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基本前提는 本格的이며 近代的인 國家體制建設(nation-building)에 관한 한 우리는 1960年代初의 發議에서 30년도 채 안되는 日淺한 時間的 空間을 縱斷的으로 지녀 오고 있으며 또한 國土分斷으로 말미암은 엄청난 부담하에 스스로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동시에 1988년에 들어와서 실로 革命的으로 脫權威主義的이며 본격적인 民主發展과 福祉社會具現이라는 國家發展課題를 극히 成功的인 輸出主導的 工業發展에 더하여 成就하고자 하는 二重的・三重的인 “時間・場所狀況”(time-place qualification)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II. 農村指導事業의 重要性和 基本性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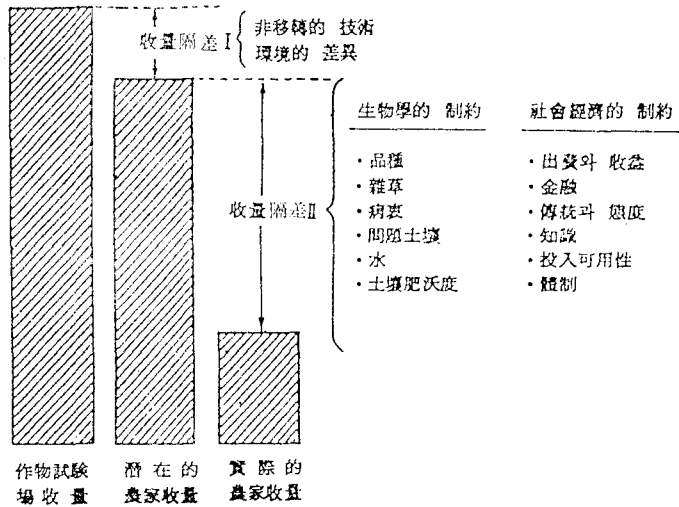
오늘날의 모든 國家는 그가 先進國이든 最低開發國이라고 통칭되고 있는 가장 뒤쳐진 개발도상국이든간에 農業技術移轉, 다시 말하면 研究開發된 國內外의 “새로운 農業技術”(new agricultural technology)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農業者들에게 普及·傳播하여 실제로 農業經營에 適用함으로써 生産性を 높이고 經濟的 收益, 그리고 社會的 收益을 거두게끔 하는 것을 公共적으로 制度化하고 있다.⁽¹⁾ 이미 본 바와 같이 美國에서는 “協同農村指導事業”이라고 하며, 日本에서는 “普及事業” 또는 “農業改良普及事業”, 그리고 대만에서는 “推廣事業”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리워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農村指導事業”으로 公式적으로 規定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特定國家社會內에서의 國內的 農業技術移轉(national agricultural technology transfer)과 구별되는 國境을 초월한 國際的 農業技術移轉(international agricultural technology transfer)도 있게 마련인데 이것 역시 오늘날 制度化(institutionalization)되어 있다. 國際農業技術移轉은 특히 第2次 世界大戰後에 先進國이 開發途上國을 위하여 베풀어 온 國際開發援助(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의 틀안에서 國際開發援助의 中軸이 되어오고 있는데 이는 거의 모든 開發途上國이 農業의 基盤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國際農業技術移轉이 先進國을 源泉(origins)으로 하는 경우보다 뒤쳐진 開發途上國, 다시 말하면 대다수 後發的 開發途上國(latecomer developing countries: LCDCs)의 경우, 보다 앞선 開發途上國, 즉 先發的 開發途上國(firstcomer developing countries: FCDCs)을 國際農業技術移轉의 源泉으로 삼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先發的 開發途上國의 선두주자가 된다. 그리고 國際農業技術移轉은 흔히 農業 및 農村開發技術의 國際的 移轉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國際的 農業開發의 中核이 된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國際的 農村指導事業, 또는 農村指導事業의 國際的 外延化가 된다고 볼 수가 있다.

한편에 있어서 1970年代末에 발표된 Gomez와 기타⁽²⁾에 의한 쌀의 收量隔差에 관한 圖式的 概念化는 農村指導事業은 물론 農業研究開發에 대하여 크나큰 理解를 촉진시켜 주는 것

(1) W. Arthur Lewis,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Richard D. Irwin, 1954, p.177.

(2) Kwanchai A. Gomez, et al., “A Methodology for Identifying Constraints to High Rice Yields on Farmers’ Fields” in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Farm Level Constraints to High Rice Yields in Asia: 1974~1977*, p. 30.



作物試驗場·潛在的農家 그리고 實際的農家 사이의 쌀 收量隔差의 概念化

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收量隔差 I” 또는 “收量隔差 II”는 相對的으로 크게 縮小시킬 수가 있는데 農村指導事業이 이를 위하여 寄與하는 諸要因중에서 相對的으로 가장 중요한 機能을 한다는 것이다.

개별적인 國家의 文化變異(cultural variation)와 文化變動(cultural change), 다시 말하면, 國家經濟社會의 發展水準 내지 發展段階에 따라서 이와 같은 農村指導事業이 적지 않은 變異를 그의 機構組織面 그리고 課題내지 機能面 등에서 보일 것은 상정하기가 어렵지 않다. 相對的인 視角에서 볼 때에 世界에서 거의 絕對的인 數를 차지하고 있는 開發途上國, 그중에서도 특히 後發的 開發途上國의 대다수는 매우 뒤쳐진 農業基盤으로 되어 있고, 또한 食糧生産不足을 걱정하게 경험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으며, “農業 및 農村開發=國家發展”의 等式이 성립될 정도이므로 이와같은 農村指導事業은 農業 및 農村開發의 가장 유력한 戰略중의 하나로 규명되고 있다.⁽³⁾ 그러나 農村指導事業은 Long⁽⁴⁾의 이른바 “變換의 接近” 또는 “改革的 接近”(transformation approach)이 아니라 “改良的 接近” 또는 “改善的

(3) 예컨대 다음을 참조할 것 : Lele Uma, *The Design of Rural Development: Lessons from Africa*,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5; In Keun Wang, “The Role, Performance and Strategies of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in In Keun Wang, *Rural Development Studies: Korea and Developing Countr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86, pp.441-82; 韓國農村經濟研究院, 『開發途上國間의 農村開發協力과 農村指導』, 1983.

(4) Norman Long,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Rural Development*, Tavistock Publications, 1977, pp.144-84.

接近(improvement approach)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農業協同組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眞”農村指導事業과 구별되는 바 “準”農村指導事業을 인식할 필요도 있다.⁽⁵⁾

이미 1978년에 近代의인 農村指導事業의 本源國이라고 간주되는 美國을 위시한 斯界의 諸專門家와 關聯文獻의 광범위한 分析을 통해 그 결과로서 一般的으로 農村指導事業의 基本性格을 도합 다섯가지 범주로 再定立하였으며 아울러 우리나라 農村指導事業이 當面한 發展的 課題를 선택적으로 살핀 바가 있다. 再定立 또는 再構成된 農村指導事業의 一般的인 다섯가지 基本性格은 (i) 實踐指向의인 非正規的 農村教育事業, (ii) 各級의 國家的 및 民間的 機構의 協同的 事業, (iii) 農村人의 自主的 意思決定에 입각한 技術革新事業, (iv) 展示方法을 基軸으로 한 教育的 農村變化促進事業, 그리고 (v) 農村人의 人間開發의 地位向上目的과 地域的 및 國家的 開發目的이 均衡的으로 調和된 技術的, 社會的, 그리고 經濟的인 農村開發事業 등이다.⁽⁶⁾ 이와 같은 農村指導事業의 基本性格의 一般的인 規定化는 正統的이며 傳統的이자 또한 어느 정도 發展的인 성격의 것이기도 한데 특히 產業社會 進入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國家社會發展의 現實的 狀況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必要하며 또한 새로운 解釋이 요청된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農村指導事業은 農村社會經濟開發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公共計劃인데 이를 規制하는 要因은 그것이 內在的이건 外在的이건 간에 多岐에 걸쳐 있다. 이들 要因은 產業社會 進入을 앞에 두고 크게 變化를 보이고 있는 오늘날 흔히 “農業構造改善”(agricultural structural change), “農業調整”(agricultural adjustments), 또는 “農業適應”(agricultural adaptation) 등으로 表現되고 있거니와 여기서의 “農業”은 農業, 農業者, 그리고 農村地域 社會의 統合의 概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꼭 필요하다.⁽⁷⁾ 그리하여 產業社會 進入이라는 總體的인 國家社會發展의 틀안에서 이와 같은 農業部門의 變化, 다시 말하면, 發展的 進化에 대한 當爲的인 反應으로서 農村指導事業도 適應的인 發展을 하여야 한다.

III. 發展的인 農業, 農業者, 農村, 그리고 農村指導事業

1. 發展過程下의 農業, 農業者, 그리고 農村地域社會

産業社會(industrial society)라고 할 때에는 生産手段의 態樣에 관한 概念으로서 資本主義

(5) 王仁權, 「農村社會-經濟開發의 規制要因과 發展的 課題」, 『韓國農村開發研究』, 1982, p. 414 (脚註).

(6) 王仁權, 「農村指導事業의 基本的 性格과 當面의 發展課題」, 上揭書, pp. 241-69.

(7) 王仁權, 「韓國農村開發의 概念 再規定化」, 『韓國農業教育學會』, 第16卷 第4號, 1987, pp. 29-35; 『農村社會學』, 韓國放送通信大學出版部, 1988, pp. 276-344, 320-36.

社會나 社會主義社會라는 概念이 주로 生産手段의 所有關係의 差異에 의하여 구별되는 것과 크게 다르다. 다시 말하면 産業社會는 社會構造가 總體的으로 機械技術體系에 의하여 編成되고 規定되고 있는 社會를 말한다. 따라서 産業社會를 특징지우는 것은 大量生産, 大量消費, 大量傳達媒介(메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발달된 交通과 通信體系가 된다. 이와 같은 産業社會가 발달하면 肉體勤勞者 보다는 事務職勤勞者가 增加되며 管理化와 情報化의 傾向이 강화되며, 階層構成도 多樣化되고 平準化되는데 이와 같은 諸特徵은 歷史的 範疇로서의 資本主義나 社會主義의 體制를 초월한 普遍的 概念으로서의 産業社會를 提起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先發的 開發途上國 또는 中進國의 先頭走者格인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産業社會, 다시 말하면 先進國 또는 工業國으로의 進入을 가속화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우리의 農業, 農業者, 그리고 農村 또는 農村地域社會는 다른 모든 部門과 마찬가지로 發展的인 適應化속에서의 調整과 進化라는 커다란 課題를 안게끔 되어 있다.⁽⁸⁾

計數的 또는 指標的으로 産業社會에 進入하는 우리나라의 農業, 農業者, 그리고 農村地域社會의 現實的 내지 現象形態的인 位座를 再吟味하여 살피는 것이 先行作業이 될 것이나 그러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극히 一般的으로 몇 가지의 범주에 걸쳐서 概觀을 간명하게 未來指向的이고 投射的 次元에 입각하여 살피보기로 한다. 기실에 있어서 先進的인 開發途上國, 中進國, 新興工業國, 그리고 先發的 開發途上國이라고 하면 農業, 農業者, 그리고 農村地域社會의 대체적인 特性의 정립과 이해는 보편적 내지 공통적 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接近을 취하여도 무방하며, 또한 본고의 성격상 본격적인 관심을 보일 여유와 필요는 없다고 본다.

먼저 農業, 다시 말하면 廣義의 農業 및 聯關産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觀察과 投射의 순서를 가리지 않고 간결하게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로, 相對的으로 말하여 農業은 “斜陽産業”(declining industries)이라기 보다는 “縮小産業”(retrenched or reduced industries)이라는 國家經濟的 地位가 더욱 강화되어 가나 그의 重要性은 또한 더욱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8) 다음과 같은 비교적 體系的인 刊行물을 보기로 지적할 수가 있다: 韓國農業科學協會, 『農業과 國家發展』, 심포지움 보고서, 1987; 『尖端科學技術과 農業革新』, 심포지움 보고서, 1986; 韓國農業政策學會, 『世界農業의 動向과 韓國農業의 政策方向』, 심포지움 보고서, 1987; 宋大熙, 柳炳瑞, 『産業高度化에 따른 農業構造의 改編方向』, 韓國開發研究院, 1985; 현대사회연구소, 『현대사회』, 제17권, (특집·신흥공업사회의 연구), 1985; 崔洋夫·李正煥, 『産業社會의 農村發展戰略—새로운 農村地域 綜合開發 方式의 선택』,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7; 許信行, 『韓國農業의 成長과 發展方向』,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6; Food and Agriculture Development Center, Germ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gricultural Adaptation Processes in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Seminar Proceedings, 1980; Han Sung-Joo, ed., *Korea in the Year 2000—Prospects for Development and Change*, Asiatic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1985.

그리고 둘째로 農業은 획기적인 構造改編, 生産性的 提高, 그리고 國際的인 適應力 및 競爭力을 지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農業者는 “農業經營者”로서의 力量을 갖추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는 受動的인 아닌 能動的인 “自由作爲者”(free actors or agents), 다시 말하면 合理的이며 必要한 意思決定을 自律的으로 내릴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고도의 尖端的인 知的 및 技術的 裝備도 갖춰야만 한다. 그리고 農業所得의 크기도 확대하여야만 하나 農家所得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켜 衡平的이며 適正한 삶의 質을 구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農村地域社會는 한마디로 말하여 “快適한 生活의 場”이 되어야 하는데 過度한 肉體的 勞動이 요구되는 苦役의 고장이라는 傳來의 通念이 高度의 農業機械化 또는 農場自動화, 그리고 家庭自動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불식되게 된다. 여기서의 “쾌적한 生活의 場”은 適正的인 基本必要의 充足을 근간으로 하나 그 이상의 全方位的인 概念이다.

이와 같은 產業社會進入에 있어서의 農業, 農業者, 그리고 農村地域社會의 發展은 주로 세가지 범주의 關係集團의 노력에 의하여 촉진·뒷받침된다고 볼 수가 있다. 그 하나는 農業者 스스로의 自己發展的인 努力인데 이는 그들의 利益代辯者的인 組織에 의하여 支持·促進된다.⁽⁹⁾ 다음 두번째는 國會도 포함되는 바 政府當局의 適切한 政策의 企劃과 執行 또는 實踐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 범주는 大學, 聯關的인 公共的 및 民間的인 諸機構에 의한 “새로운 技術”(new technology) 또는 “革新”(innovations)의 研究開發(research and development: R & D) 및 移轉傳播(transfer and diffusion: TD) 活動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는 協同的으로 이루어지는 바 “學·研·產 研究 移轉”이 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겠다.

2. 發展的 農村指導事業을 위한 基本命題

發展的인 農村指導事業에 있어서 期待·要求되는 基本的 接近, 다시 말하면 基本的인 命題를 먼저 선택적으로 간명하게 定立하기로 하는데 비록 個別的으로 抽出·分析하여 살피기는 하지만 이들은 相互規制的으로 統合 또는 構造化되어 있는 屬性을 지니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農村指導事業은 점차 顧客(clients)의 “知覺的 必要”(felt-needs)에 입각한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顧客의 要請에 입각한”(on-request-basis) 農村指導事業이 되어야 한다. 最下階層的인 零細農은 脫農化되어야 하기 때문에⁽¹⁰⁾ “非知

(9) 王仁權, 「農業者利益代辯制度의 本質, 現況, 그리고 課題」, 『서울大學校農學研究』, 第10卷 第2號, 1985, pp.111-22.

(10) 理論的인 當爲論이 지배적이지만 극히 최근에 政府當局에서는 0.5町步未滿의 零細農의 轉業을 적극 촉진 권장하고 專業農家 또는 在村農家의 營農大單位化를 農地收買資金 등의 長期融資로 구현시킴으로써 農業構造改善을 꾀하는 當面政策을 公表한 바 있다.

覺의 必要”(unfelt-needs)를 知覺의 必要로 變換시키는 데 지나친 資源을 配分하는 것은 經濟적으로 調整 축소되어야 한다.

둘째, 상당정도로 商業農 또는 企業農(commercial farm)의 基本路線에서, 다시 말하면 Arnon⁽¹¹⁾의 이론 바 “市場指向的 農業”(market-oriented agriculture),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工業化的 農業”(industrialized agriculture)으로의 발전을 보는 農家를 앞에 함으로써 正統的이자 傳統的인 農村指導事業의 基本原理는 教育學的인 것이 支配的인 이론 바 “落水波及效果”(trickle-down effects), 다시 말하면, “傳播理論”(diffusionistic theories) 또는 “傳播模型”(diffusion model)⁽¹²⁾으로 되어오고 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론 바 “誘導革新模型”(induced innovation model)⁽¹³⁾ 또는 “誘導革新理論”에 입각한 農村指導事業으로 指向되어야 한다. 비록 “強制”(coercion)를 함의하는 Long⁽¹⁴⁾의 이론 바 “持續的 說得”(persistent persuasion)은 아닐지라도 正統的이자 傳統的인 段階的 學習理論에 입각한 教育學的인 農村指導事業이라기 보다는 市場에 있어서의 經常的인 價格信號(price signals)에 의하여 農業技術의 變化, 다시 말하면 農業技術革新의 受容이 能率的인 方向과 樣態로 經濟的인 動機誘發과 意思決定으로 誘導되어 간다고 보는 立場이다. 그러므로 例컨대, 農業革新 傳達媒介(communication for agricultural innovations)의 性狀도 誘導革新模型에 입각한 農村指導의 경우는 傳播模型에 의한 農村指導의 경우와 다른 바가 있게 마련이다.⁽¹⁵⁾

세째로, 農業者, 즉 農業經營者는 受動的인 被指導者가 아닌 自由作爲者(free actors)로

(11) I. Arnon, *Modernization of Agriculture in Developing Countries*, John Wiley & Sons, 1981, pp. 508-10.

(12) 가장 代表的이고 世界的인 표준적 저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verett M. Rogers, *Diffusion of Innovations*, The Free Press, 1962; Everett M. Rogers with F. Floyd Shoemaker, *Communication of Innovations-A Cross-Cultural Approach*, 2nd ed. The Free Press, 1971; Everett M. Rogers, *Diffusion of Innovations*, 3rd ed., The Free Press, 1983.

(13) 誘導革新模型은 農業經濟學者들이 특히 내세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의 代表的인 학자는 Vernon W. Ruttan과 Yujiro Hayami 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Yujiro Hayami and Vernon W. Ruttan, *Agricultural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1; Hans P. Binswanger and Vernon W. Ruttan, et. al., *Induced Innovation: Technology,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8. 그리고 우리나라의 經驗的 研究事例는 全北大學校 農科大學의 朴正根 教授에 의한 것이 代表的인바 예컨대 다음을 참조할 것: “Induced Innovation in the Korean Rice Economy: 1963~1984,”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Vol. 9, No. 2, 1986, pp. 305-21; “Some Methodological Problems on Testing Induced Innovation Hypothesis in Agricultural Developmen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Bulletin of Agricultural College*, Vol. 15, 1983, pp. 185-92.

(14) Long, 前掲書, pp. 145-46.

(15) Bryant E. Kearl, “Communication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n Wilbur Schramm and Daniel Lerner, eds., *Communication and Change: The Last Ten Years and the Next*, The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76, pp. 151-62.

서 可用的이며 露出케 되는 諸般 聯關情報을 蒐集·分析하여 自律的인 農業經營 意思決定을 能動的으로 내리는 主體로 되게 마련이다.⁽¹⁶⁾ 다시 나아가, 네째로, 農村指導事業은 이른바 “農村地域 綜合開發”(regional integrated rural development: RIRD)⁽¹⁷⁾의 한 下位構成因子가 되며 또한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의 認識인데, 특히 現行的 廣域的인 統合農村開發로서의 農村地域綜合開發計劃의 6大範疇의 下位部門중에서 이른바 “地域農業開發計劃”(reg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program: RADP)을 중핵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生活環境開發計劃” 등과도 밀접히 연계되기 때문이다. 根本的으로, 그리고 現實的으로 우리나라의 農村開發計劃은 바로 이와 같은 農村地域綜合開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로 지적 되어야 할 基本的인 接近은 總體的인 福祉國家發展의 틀 안에서 農村地域綜合開發의 중요한 寄與 要因인 農村指導事業으로서 “人間主義的·民主的 및 參與的 經營樣態”(Humanistic-Democratic-Participative Management Style: HDP Management Style)⁽¹⁸⁾를 통한 農村人의 삶의 質(quality of life: QOL)을 具現 提高시키는데 있다는 것이다.

3. 農村指導事業의 選擇的인 發展의 課題

앞으로의 產業社會進入에 따른 農村指導事業의 發展的 또는 進化的인 課題를 선택적으로 내다보기 위하여서는 農村指導事業의 發展 내지 進化를 總體的으로, 다시 말하면, 全一體로서 投射하는 것이 先行的으로 이루어져야 매우 바람직하다. 물론 그렇다고 農村指導事業의 必須的인 諸構成因子중의 하나인 農村指導課題만을 抽出·分離하여 그의 發展的 내지 進化的인 投射를 베푸는 것이 전혀 不可能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農村指導事業의 課題, 다시 말하면 機能 또는 範圍는 農村指導事業의 다른 諸必須構成要因, 예컨대 보다 큰 範疇의 것으로 볼 때 (i) 豫算, 즉 國家資源配分上의 選擇, (ii) 機構 組織, (iii) 事業展開의 方法 및 手段, 그리고 (iv) 人力 등과 相互構造化되어 있다는 사실을 直視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다만 發展的 農村指導事業의 선택적인 基本的 接近을 하나의 假定으로 定立한 연후에 마땅히 進化·發展되어야 할 農村指導事業의 우선적 課題를 投射하기로 한다.

서울大學校는 每 4年마다 教科課程을 再檢討하여 必要하다고 여겨지는 바는 이를 反映시

(16) 다음을 참조할 것: 王仁權, 「農村指導事業의 ‘公共問題的 課題’」; 王仁權, 『韓國農村開發研究』, 前掲書, 1982, pp. 376-96.

(17) 國際聯合亞太經濟社會理事會(ESCAP)의 *Guidelines for Rural Centre Planning*(1979)에 原則的으로 크게 힘 입은 바 있을 것이지만 韓國農村開發研究院의 主導的 努力에 의하여 研究開發되고 企劃執行되고 있는 바 다음을 참조할 것: 韓國農村開發研究院, 『2000年을 향한 農村定住生活圈開發基本構想』, 1982; 『青松地域綜合開發計劃(案): 1987~1991』.

(18) W. Bennis, *Changing Organizations*, McGraw-Hill, 1966.

키고 있는데 이와 같은 教科課程은 農村指導事業에 있어서의 課題와 같으며 이는 급속하고도 참신한 社會經濟發展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다. 發展의 農村指導事業의 선택적인 과제, 다시 말하면, 農村指導課題發展의 選擇的 投射는 극히 간결하게 살피기로 한다.

1) 農業經濟課題의 획기적 강화

農業經濟課題 또는 農業經濟學課題(agricultural economics program)는 農業經濟學이 포괄하는 연관적인 중요한 下位分野, 예컨대 農業經營, 農產物流通, 그리고 土地를 위시한 資源利用 등에 관한 農村指導課題가 된다. 이는 農業所得을 증대시키고 高生産性的 農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國際競爭力을 지니도록 하는 데 기본목적이 있으며⁽¹⁹⁾ 이른바 國策 農村指導課題(extension programs applied to national needs: EPANNs)이었던 食糧의 物的 增産과 크게 구별되는 것이 된다. 複合農業(diversified farming)은 自給自足的 目的이 아니라 商業農的 또는 企業農的인 次元에서 比較立地 有利性和 특히 都市市場 需要성에 입각하여야 한다. 물론 農產物流通課題에서 특히 더할 것이지만 農業經營課題에 있어서 農村指導體系의 統制내지 管理의 範圍를 넘는 外因的 變數의 規制를 받는 면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農業經濟 農村指導課題가 本格的으로 배풀어지면 이와 같은 外的 規制要因을 友好的인 것으로 變換시키는 第1次的인 努力의 責務는 農村指導體系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生活改善課題의 內實의 擴大

基本欲求(basic needs), 다시 말하면 衣食住上的 生存欲求의 充足이 문제가 되는 단계는 이미 오래 전에 經過한 우리들이다. 따라서 傳統的인 農村生活改善課題(rural living improvement programs)로서의 衣食住, 그 중에서도 특히 住生活局面이 획기적으로 次元을 달리하여 強化되지 않으면 안된다. 住生活은 物的인 面, 즉 住宅 또는 家屋의 改善 보다 正確하게는, 農村生活環境의 改善도 대단히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²⁰⁾ 여기서 두드러지게 강조하게 되는 바는 物的인 面과도 일정한 연관관계가 있는 非物質的인 生活局面이다. 이것을 家庭經營, 家庭管理 또는 家庭發展(home development)이라고 범주화하여도 무방하며, 또한 家族發展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家族成員의 地位와 役割을 民主的으로 定立發展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次元의 住的인 生活改善課題는 先

(19) 이는 大體적으로 다음과 같은 美國 CES의 한 評價研究會에 포함된 Production과 Marketing에 관한 投射의 課題와 그의 軌를 함께 한다고 볼 수가 있음: Bryant E. Kears, et al., eds., *A Guide to Extension Programs for the Future*, Th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North Carolina State College, 1959, pp. 4-13.

(20) 다음을 참조할 것: “農村生活環境改善을 위한 政策課題—第6次 農漁村地域綜合開發 워크샵”,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및 慶尙大學校 主催, 1988, 5, 12-14.

進社會進入에 따른 家族解體라는 위험성을 保衛한다는 側面에서도 볼 수가 있으며, 또한 비근한 보기로서 農家主婦를 農業經營者와 같은 農業勞動的 地位에서 元來의 제자리로 환원시키도록 노력하는 것도 포함한다. 適正하게 快適한 農村生活環境이 必要不可缺한데 이는 物的인 것과 더불어 非物質的인 것으로 가능하게 마련이다.

3) 農村機械化課題의 획기적 강화

보통 農業機械化(agricultural mechanization)라고 말하는데 구태여 農村機械化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農產業의 機械化 또는 自動化 뿐만 아니라 家庭生活의 機械化 또는 自動化, 그리고 地域社會生活의 機械化 또는 自動化도 포괄하기 때문이다. 기왕에 있어서 農業機械化는 支配的으로 經濟的 側面만을 강조하여 온 印象이 매우 큰데 社會的 側面, 즉 社會的 收益性(social profitability)도 매우 중요하다. (21) 이와 같은 第1段階의인 農業機械化는 工業發展의 뒷받침과 이를 가능케 하는 諸下部構造와 金融施設 등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보게 되는데 農村指導體系가 떠맡게 되는 바 責務가 곧 農業機械化課題 또는 農村機械化課題이다. 操作 및 保守에 관한 教育訓練이 주가 될 것인데 性急함, 未熟함, 그리고 不注意性 등으로 機械災害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되는 동시에 工業的 國家發展을 위한 國民生活의 科學化라는 間接的인 視角에서도 매우 중요한 課題이다.

4) 公共問題課題 또는 市民權課題

원래 美國에서는 “公共問題 農村指導課題”(public affairs extension program)로 定立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市民權課題”(citizenship program)와 매한가지가 되며 農村社會開發計劃(rural social development programs)의 테두리 안에서의 것이다. (22) 기왕의 우리나라의 農村指導事業에서 극히 斷片的으로 본 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의 本格的인 企劃實踐은 우리의 國家社會發展, 따라서 農村社會發展에 따른 農村指導事業의 相應의 發展을 위하여 必要不可缺하다. 다시 말하면 農村人의 農業 및 生活를 위주로 하는 自律的인 意思決定을 위하여 必要하고도 客觀的인 情報를 直接的으로 제공하거나 그의 源泉을 알려주는 것을 중핵으로 하는 課題로서 어느 면에서 볼 때 餘他的 農村指導課題가 상당정도 直接的인테 대하여 間接的인 性格을 지닌다. 그리고 政府의 農業政策 또는 農村政策에 대한 理解의 促進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政治的 敏感性(23)을 지닐 수가 있는데 바야흐로 情報化

(21) In Keun Wang, “Economic and Social Aspects of Farm Mechanization in Korea”, Food & Fertilizer Technology Centre, *Extension Bulletin No. 251*, 1987, pp.10-24.

(22) 王仁權, 「農村指導事業의 ‘社會開發의 課題’」, 『韓國社會學』 13, 1979, pp.79-89; 沈永根 外, 「農村指導事業의 公共問題의 指導課題」, 『서울大學校 農學研究』, 第4卷 第2號, 1979, pp.65-78.

(23) 1979年 9月 14일에 發表된 政府當局의 特別調查機構에 의한 調查報告書, 『產業體·農村 外部勢力浸透實態報告書』에서도 關係指導機關이 農政弘報를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고 결론 짓고 있는데 이의 實體가 바로 農村指導 公共問題課題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時代に 접어들고 있으므로 매우 效率的으로 집행할 수가 있다고 본다. 이는 물론 必要情報의 可用性確立이 相對的으로 보다 挑戰的이 될 것이나 다른 農村指導 또는 農村技術移轉의 경우와 같이 前提的이며 必須不可缺의 素材(革新)가 된다. 自由作爲者의인 農村人을 위하여 持續的 또는 教育的인 說得의 農村指導에서 能動的인 誘導革新的인 農村指導로 發展的進化를 하는 데 있어서 꼭 必要한 것이 된다고 본다.

IV. 農村指導事業의 國際的 展開

1. 先發的 開發途上國의 國際農業技術移轉의 位置

國際農業開發援助(international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assistance)는 지배적으로 先進國과 그의 주도에 의한 集團을 중심으로 한 “先發國”으로 되어 있는 開發援助供與機構가 開發途上國, 그중에서도 後發的 開發途上國을 主對象으로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의 本質은 技術移轉(technology transfer), 즉 國際農業技術移轉(international agricultural technology transfer)이 된다.

國際農業技術移轉은 國際開發援助의 한 構成部門으로 되어있는 國際農業開發援助의 증핵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國際農業技術移轉의 주요한 선택적 國면을 살필 필요가 있다. (24) 첫째로, 國際的인 것으로서 보통 말하는 農村指導事業과 같은 國內的인 것과 구별될 수가 있는데, 기실에 있어서는 서로 밀접하게 構造聯關되어 있다. 특히 後發的 開發途上國에 있어서는 自體能力이 크게 제약되어 있으므로 先發的인 國家와 이들의 集團的인 機構에 의한 國際的인 技術移轉에 크게 의지하게 되게 마련이다.

國際農業技術移轉은 (i) 實物移轉(material transfer), (ii) 디자인 移轉(design transfer), 그리고 (iii) 能力移轉(capacity transfer) 등의 諸局面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25) 開發援助受領國의 農業 또는 農業 및 農村開發의 發展을 촉진시키는 것이 基本目的이지만 食糧援助와 같은 實物移轉의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結果를 가져오는 사례도 적지 않다. (26)

(24) 王仁權, 「國際農村開發協力論序說」, 『經濟論集』, 第XXIV卷, 第3號, 1985.9, pp.323-44.

(25) Yujiro Hayami and Vernon W. Ruttan, *Agricultural Development-An International Perspective*, Revised and Expande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5, pp.260-62.

(26) B. Huddleston, *Closing the Cereals Gap with Trade and Food Aid*, Research Report 43,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1984; Christopher Stevens, *Food Aid and Developing World*, Croom Helm London, 1979.

세계에 存在하는 모든 國家를 일정의 基準 또는 範疇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분류하는데 특히 國家發展水準의 經濟的 側面에서 본다면 (i) 先進國(developed countries: DCs)과 (ii) 開發途上國(developing countries: LDCs)으로 二分化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된다. 그러나 예컨대 世界銀行(World Bank)은 5分法을 적용하여, (i) 低所得國家(low-income countries), (ii) 中位所得國家(middle-income countries), (iii) 工業國(industrialized countries), (vi) 資本剩餘石油輸出國(capital-surplus oil exporters), 그리고 (v) 中央計劃經濟國(centrally planned economies) 등으로 나누고 있다.⁽²⁷⁾ 여기에서의 工業國은 물론이지만 社會主義國家를 뜻하는 中央計劃經濟國의 國家도 포함하여 先進國이라고 본다면 여타는 開發途上國이 된다고 볼 수가 있다. 문제는 國民所得은 극히 높으나 참된 의미에서의 國家發展水準面에서 문제가 있는 (iv) 범주의 국가가 분류상의 난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 같이 廣義의 開發途上國을 定立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開發途上國을 보건대 “보다 發展된 開發途上國”(more developed developing countries), “新興工業國”(newly-industrializing countries: NICs or newly-industrializing economies: NIEs), 또는 “中進國”(intermediately developed countries)으로 구별될 수 있는 國家가 10餘國 있는데 世界銀行의 (ii) 中位所得國家에 해당되는 바 이들이 이미 본 바 있는 先發的 開發途上國이다. 여타의 開發途上國은 後發的 開發途上國으로서 “最低開發國”(least-developed among less-developed countries: LLDCs)⁽²⁸⁾을 포함한 상대적으로 보다 뒤쳐진 開發途上國이 되는데 數的으로 전세계의 160개 남짓한 국가중에서 100개를 훨씬 넘는 多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國際農業技術移轉은 支配的으로 先進國과 그들에 의한 國際的 및 集團的 機構에 의하여 開發途上國을 對象으로 하여 實質的으로 거의 一方通行的으로 실시되어 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開發途上國集團이 先發的 開發途上國과 後發的 開發途上國으로 구별 및 범주화되기 이전의 일이 된다. 물론 현실에 있어서도 先進國의 國際農業技術移轉에 있어서의 중요한 地位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國際農業技術移轉의 새로운 전개는 이와 같은 1段階的인 「先進國→開發途上國」에서 2段階的인 「先進國→先發的 開發途上國→後發的 開發途上國」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分業的으로 1段階的인 「先進國+先發的 開發途上國→後發

(27)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各年刊).

(28) 「最低開發國」(least-developed among less-developed countries: LLDCs)은 「最貧國」(poorest countries: PCs)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國際聯合에서 規定한 것으로 극히 뒤쳐진 後發的 開發途上國을 가리키는 것으로 1986年末 36個國인데 黑아프리카大陸에 集中되어 있다(王仁權, 「아프리카에 대한 國際農村開發協力—問題指向의 吟味」, 『農學研究』, 第12卷, 第2號, (1987),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p.76 註).

的 開發途上國」이 된다. 그리하여 근자에는 역시 1段階的인 「先發的 開發途上國→後發的 開發途上國」의 方向으로 나아가는 傾向이 크다고 보겠는데,⁽²⁹⁾ 農村指導의 國際移轉의 경우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와 같은 1段階的인 성격의 것이다.

이와 같이 先發的 開發途上國이 農業開發을 가장 實地하게 필요로 하는 多數의 後發的 開發途上國을 위한 國際農業技術移轉의 새로운 源泉으로 크게 功勞되고 있는 데는 그 까닭이 있다.

우선 正統的인 先進國源泉의 國際農業技術移轉이 開發途上國, 그중에서도 특히 後發的 開發途上國의 農業開發 또는 農村開發의 促進에 있어서 안고 있는 問題點을 選別적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로 氣望의 國際農業技術移轉에 있어서 供與機構는 農業의 研究와 技術面에 重點의 關心을 두지 않고 食糧 등과 같은 實物移轉에만 集中하였으며, 둘째로, 開發援助 또는 技術移轉의 受領國側에서의 導入技術의 吸收適應化에 問題가 있다. 다시 말하면 “傳統的 規範의 社會體系”(social system with traditional norms) 또는 “傳統社會”(traditional society)로서 매우 뒤쳐진 後發的 開發途上國은 自體能力의 限界의 制約으로 말미암아 先進國의 技術移轉을 받아들이는데 實際적으로 여러가지 困難點에 부딪치게 마련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제로, 많은 경우 舊植民地로서의 後發的 開發途上國의 舊宗主國이 있던 先進國으로부터의 農業技術移轉은 先進國의 關係專門家가 혹은 自國에서의 政策立案과 企劃을 통해서 또는 受領國에 功勞되어 農業開發을 돕게 된다. 그런데 諸般 先行條件의 直接, 間接의 規制라고 말할 수 있는 바 歪曲, 沒感情移入, 沒理解, 그리고 社會距離感 등의 이른바 “異文化間屈折”⁽³⁰⁾과 더불어 基本的으로 國際農業開發援助 또는 國際農業技術移轉의 目的 내지 動機 등에서 供與國側의 自國利益追求가 지나치게 두드러지게 반영되는 現象이 나타난다.

이상에서는 상당정도로 2國間의 國際農業技術移轉을 含意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先進國의 集團機構에 의한 多國的인 形態의 것도 있고 또한 先進國主導의 國際聯合機構와 地域的인 國際農業研究센터 등이 “先進國→開發途上國(後發的 開發途上國)”의 正統的이며 歷史的인 國際農業技術移轉의 問題點을 完化토록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서 特記할 것은 비교적 최근에 이르러 世界頂上의 經濟大國으로 부상한 先進國 日本이 새롭고도 強力한 國際農業

(29) 王仁權, 「先發的—後發的 開發途上國間의 國際農業技術移轉序說」, 『農學研究』, 第9卷 第1號, 1984, pp.139-53,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30) 宇野善康 外, 『國際摩擦のメカニズム—異文化屈折理論をめぐって—』, サイエンス社, 1982; 林吉郎, 『異文化インターフェイス管理』, 有斐閣, 1985.

技術移轉의 供與國으로 機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³¹⁾

우리나라는 이른바 先發的 開發途上國 또는 略稱 “先發開發途上國”의 선두주자인 셈인데 이와 같은 先發的 開發途上國이 國際農業技術移轉의 場에서 크게 두드러진 地位와 役割을 지니기 시작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대다수 後發的 開發途上國의 農業技術移轉의 源泉으로 점차 크나큰 比重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 물론 大型 프로젝트로서 막대한 經濟資源(援助資金)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國際農業技術移轉의 場에서 그의 源泉으로서 正統的인 先進國集團이 韓國과 같은 先發的 開發途上國集團에 의하여 代替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補完的인 關係定立이 된다. 비록 그의 比重이 크게 올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國際的 農業技術移轉은 本格的인 출발을 본 지 얼마 안되며, 그의 規模에 있어서 아직 미미할 따름이다.

주로 後發的 開發途上國을 위한 國際農業技術移轉에 있어서 先發的 開發途上國의 比重이 두드러지게 되고 있는 까닭을 간주려 보기로 하자. 그러나 이미 직접적으로 간단하게나마 언급된 바도 있고 또한 간접적으로 시사한 바도 있으므로 매우 선택적이며 또한 가급적으로 중복을 피하기는 하겠지만 부득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첫째로, 대체로 비슷한 開發途上國家의 地位에서 출발하였으며, 여전히 先進國과 크게 구별되는 開發途上國범주에 함께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農業技術移轉受領國인 後發的 開發途上國은 同類意識, 共同意識 또는 同伴者的인 느낌과 信賴感을 先發的 開發途上國에 대하여 갖는데 이는 이른바 “南南協力”(south-south cooperation)⁽³²⁾의 차원의 것이며, 따라서 舊植民宗主國으로서의 先進國에 대한 것과 두드러지게 대조된다.

둘째로는 아마도 가장 의미있는 戰略的 重要性의 하나가 될 것인데, 先發的 開發途上國은 質的으로나 量的으로, 그리고 時間的·空間的으로 早期에 先進國으로 부터 正統的인 새로운 農業技術의 移轉을 받아 必要한대로 適切하게 수용·흡수하여 土着化(localization)를 상당정도로 이룩하였으므로 풍부한 試行錯誤的인 學習經驗(trial-and-error learning experiences)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正統的인 國際農業技術源泉인 舊植民宗主國으로서의 先進國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實踐的으로 食糧不足까지 겪으면서 中進國으로의 國家發展을 스스로 달성한 先發的 開發途上國은 새로운 世代 또는 次元의 技術移轉源泉으로서의 強點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31) 國際協力事業團, 『國際協力事業團10年の歩み』, 1985: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annual reports).

(32) “南南協力”은 國際的 協力の 場에서의 開發途上國 相互間의 協力を 두고 말하는데 이는 先進國과 開發途上國間의 協力を 뜻하는 “北南協力”의 直接的인 聯關概念이다.

세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앞서의 두번째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 되는데 先發的開發途上國의 農業開發은 相對的으로 볼 때에 後發的開發途上國과 비교하면 매우 발달되었으나 先進國과 견주어 볼 때에는 아직 後進的이라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先發的開發途上國은 그의 農業開發에 있어서 先進國과 後發的開發途上國의 中間的인 地位를 차지함으로써 또한 相應的인 役割이 期待되고 追求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役割이 곧 國際農業技術移轉에 있어서 後發的開發途上國이 先發的開發途上國을 源泉으로 삼는 加增的인 傾向이 된다. 이를 다른 角度에서 보면 先發的開發途上國은 一般的으로 말하여 後發的開發途上國을 위하여 상당정도로 “適正技術”(appropriate technologies)⁽³³⁾을 供與한다고 볼 수가 있다.

네번째는 이와 같은 세번째의 것에 附隨的으로 接續되는 性格으로써 先發的開發途上國이 不可避하게 겪게 되는 發展的인 農業의 適應的 또는 調整的인 諸問題와 이에 대한 對應策, 그리고 더 나아가서 自體的인 農業開發을 企劃·執行하기 위한 研究開發과 技術移轉 즉 農村指導事業을 위한 未來指向的인 實踐, 經驗的 情報도 의미있게 얻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다섯번째는 先發的開發途上國源泉의 國際農業技術移轉은 受領國인 後發的開發途上國에게 있어서 相對的으로 보다 더 經濟的인 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無償의 경우는 별문제이지만 費用面에서 先進國源泉의 國際農業技術移轉보다 월등하게 節約이 되는데 이와 같은 經濟的 有利性은 效果面과 能率面에서의 相對的 優位性으로 보다 더 두드러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10個國 남짓한 先發的開發途上國중에서 모든 점을 다 考慮에 넣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바람직한 國家가 되고 있다. 대만은 國際社會에서 매몰되어 있다.

(33) 美國農業과 같은 대규모이고 고도로 상업적인 農業經營에서 사용되는 超大型의 農機械는 日本이나 우리 나라와 같은 小農經營에서 그대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가 지배적이므로 주지하는 바와 같이 小型農機械가 개발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아닌 適正技術 또는 適應技術의 대표적 보기가 될 것이다. 이른바 基礎研究(basic research)를 고려 밖에 둔다면 각종의 試驗研究機關과 大學에서 행하는 應用研究(applied research)는 이와같은 適正技術을 연구·개발하는 데 있는 것이다. 다음을 참조할 것. Seminar Centre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German Foundation for Developing Countries,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of Appropriate Technologies in Rural Areas*, 1972. 보다 일반적 수준에서의 單行本 參考刊行書의 보기는 다음과 같다. Nicolas Jéquier(ed.), *Appropriate Technology: Problems and Promises*, Development Centre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1976. 가장 後進的인 Africa에서의 適正技術化의 보기를 본다면, 중심적으로 Africa 諸國의 農村開發을 총체적으로 돕고 있는 獨逸政府의 農業技術者들은 肥料라는 投入의 缺如 내지 非可用性으로 말미암아 綠色革命的 成功을 만족스럽게 보지 못하고 있는 現實的 經驗에 입각하여 肥料를 위주로 하는 投入(inputs)을 적게 요하되 產出(output)을 상대적으로 일정수준으로 보지 시키는 農法을 분석·개발하고 있음이 공표되고 있다(Germ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pril 1977, pp.17-20).

마지막 여섯번째로 지적되어야 할 바는 (韓國과 같은) 特定の 先發的 開發途上國은 先進工業國에의 進入을 앞두고 國際經濟活動이 두드러지고 良好하기 때문에 正統的인 國際農業技術供與國으로 機能하여 오고 있으나 經濟的 事情의 惡化로 이의 責務를 先發的 開發途上國에 점차 떠맡기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예상되고 있다.

2. 農業技術의 國際移轉的 性狀

農業技術(agricultural technology)의 概念을 과학·적용할 때에는 狹義가 아닌 廣義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農業技術을 傳統的 또는 매우 오래된 慣行대로, 그리고 단지 分析的 必要에 의하여 技術學的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生物學的 技術, 化學的 技術, 機械學的 技術 등⁽³⁴⁾에만 국한하지 말고 農業技術 또는 農產業과 밀접하게 연관된 經濟的, 制度的, 社會的, 그리고 政治的인 諸裝置까지도 포괄하는 全體體系(total system)⁽³⁵⁾로 보아야 마땅하다. 이를 다른 概念으로 간주려 再構成한다면 農業技術은 農業自然科學的 및 農業社會科學的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 되는데⁽³⁶⁾ 물론 前者의 범주의 것이 중핵 또는 基本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農業 및 農村의 開發을 위한 社會制度로서의 農村指導事業도 農業技術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 경우는 “體系技術”(system technology)이 된다.

그런데 農業技術 또는 農業 및 農村技術이라고 할 때는 한편에서는 農業 및 農村開發을 위하여 필요한 廣義의 農業技術 또는 農業 및 農村技術로서 파악 이해될 수가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農業 및 農村開發을 위하여 그의 企劃과 執行의 過程에서 필요하게 되는 方法手段의 또는 道具的인 面에서의 技術, 즉 “技術移轉技術”(technologies for technology transfer)로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진적으로 社會科學的 또는 行動科學的인 技術이 된다. 그런데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두가지의 視角에서의 것을 하나로 統合하여 農業 및 農村開發技術을 農業 및 農村開發을 위한 소재로서의 새로운 技術 또는 革新과 이를 移轉하는 道具的인 技術의 두가지로 함께 이해 파악할 수가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다.

農業 및 農村開發을 위하여 活用되는 바 研究開發된 새로운 技術 또는 革新은 適正技術(appropriate technology)로서 예컨대 相對的 有利性(relative advantage), 適合性(compatibility), 試行性(trialability), 그리고 觀察性(observability or communicability)을 크게 지

(34)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Survey of Asia and the Pacific: 1975*, pp.61-95.

(35) John P. McNerney, *The Technology of Rural Development*, World Bank, 1978.

(36) 王仁權, 『現代의 農村社會學』, 博英社, 1983, pp.2-9.

녀야하며, 複雜性을 비교적 덜 지니는 것이어야 한다.⁽³⁷⁾ 따라서 尖端技術 또는 最新技術이어야 한다고만 말하는 것은 불충분한 것이 된다. 왜 그런고 하니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새로운 技術 또는 革新의 여러가지 “知覺된 特性 내지 屬性”(perceived attributes)⁽³⁸⁾ 중에서 相對的 有利性만을 거의 排他的으로 가르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道具的인 移轉技術로서 農業 및 農村開發技術의 基本屬性을 보건대 文化變異와 文化變動의 原理에 입각한 바 適正技術로서, 예컨대, 社會體系規範(social system norms), 逸脫寬容性(deviancy tolerance), 傳達媒介統合(communication integration) 등과 같은 社會體系變數(social system variables)⁽³⁹⁾에 조응된 技術로서, 일련의 段階的 學習理論(progressive learning theory)에 의한 傳播論的인 接近 또는 市場價格信號에 의한 誘導革新論的인 接近에 의하여 移轉된다고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은 屬性 내지 接近은 그 어느 경우이든간에 하나의 “連續體的인 過程”(continuum-process)이라는 것을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先進產業社會에 진입함에 따라서 傳播論的 또는 教育學的인 屬性내지 接近은 점차로 그의 상대적 비중이 낮아지게 된다.

自體研究開發 또는 先進國으로부터의 導入에 의하여 潛在的으로 活用될 수 있는 農業 및 農村開發을 위한 技術과 現實的으로 使用者 또는 需要者(農業者)가 受容適用하고 있는 農家技術(farmers' technology) 또는 慣行技術(customary technology) 사이에는 間隔(gap or spread)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다. 이 間隔을 축소시키는 것이 바로 技術移轉인데 技術의 研究開發은 또한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여 나가게 마련이므로 새로이 간격이 생기게 된다. 다른 각도에서 볼 때에 農業 및 農村開發을 위한 새로운 技術 또는 革新은 어디까지나 實地의 顧客으로서의 農業者를 위한 것이 됨으로써 이의 研究開發과 移轉傳播는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이 매우 밀접하게 構造化되어 있다. 國內的인 農業 및 農村開發技術의 移轉의 경우도 地域特化的(location-specific)인 고려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므로 移轉技術의 實體나 技術移轉의 方法 手段에 變異가 있게 마련인데 하물며 異質的 要素가 매우 많고 또한 큰 外國에 대하여 農業 및 農村開發技術을 移轉하는 일은 매우 도전적이 아닐 수가 없다. 오늘날 결코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어느 한 後發的 開發途上國이 孤立國化하여 自體的으로 農業 및 農村開發을 꾀할 수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의 성과는 명약관화하게 보잘것 없는 것이 될 것인데 北韓이 상당정도 이의 보기가 되어 왔다. 우리나라가 세계적

(37) Rogers, *op. cit.* (1971), pp.134-72.

(38) 革新의 特性 또는 屬性을 農村社會學者들은 社會學的 또는 社會心理學的으로 개념화하고 있는데 이는 經濟學者들의 古典的인 主觀的 價値學說의 것과 그의 軌를 함께 하는 接近이라고 볼 수가 있다.

(39) Rogers, *op. cit.* (1971), pp.100-4.

인 범국가이지만 필요한대로 先進化된 외국으로부터 農業 및 農村開發技術을 導入하여 自體的인 開發能力을 함양하면서 農業 및 農村開發을 획기적으로 성취시키는 것이 바로 農業 및 農村開發技術의 國際的 移轉의 핵심이 된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國際的인 農業 및 農村開發技術의 移轉은 雙方的 또는 多元的내지 多邊的인데 그의 밑바닥에는 移轉하여 주는 側, 즉 供與國(donor country) 또는 供與者側(donor agencies)과 移轉을 받아들이는 側, 즉 受領國 또는 受領者側이 있게 된다. 특히 前者에게 있어서는 動機랄까 까닭이 있게 되는데 國際聯合敎義(United Nations Doctrine)와 같이 人道主義的인 것도 있지만 國益을 보호·촉진시키는 國家利益追求目的이 지배적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受領者側(recipients)에도 目的 내지 期待가 없을 수 없는데 근자에 이르러 中共이 非修交國인데도 불구하고 非農業的인 技術移轉을 우리나라로부터 받아들이는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가 된다고 하겠다. 초강대국이 된 日本은 그의 막강한 經濟力과 人的 資源을 동원하여 대규모로 農業을 포함한 國際技術移轉을 開發途上國에 供與하고 있는데 그의 目的은 복합적이나 결국은 國家利益追求에 귀착된다고 보아야 한다.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後發的 開發途上國이 추구하는 開發技術移轉, 즉 農業 및 農村開發技術移轉의 가장 有力하고도 바람직한 源泉으로 되고 있다. 혹자는 현실적으로 크나큰 問題點을 노정시키고 있는 우리나라로부터 어떠한 農業 및 農村開發技術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것인가 저지않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農業 및 農村開發問題는 先進國 또는 產業社會에의 進入을 앞둔 發展的 適應의 과도적인 문제라는 기본성격을 잊어서는 안된다. 國際的 次元에서 比較論的 내지 相對主義的으로 볼 때에 先進國의 경우와는 거리가 멀지만 적어도 開發途上國에서는 農村指導事業, 農業研究開發事業, 農業協同組合 등은 물론이고 農業 및 聯關產業이 매우 垂範的으로 발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後發的 開發途上國側에서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農業 및 農村的인 適正技術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속의 떡” 같은 先進國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것을 移轉하여 가고 있는 셈이다.⁽⁴⁰⁾

3. 國際的 農村指導事業의 戰略

農村指導事業의 國際的 展開, 즉 國際農業技術移轉의 戰略(strategies of international agricultural technology transfer)이라는 概念을 극히 一般的으로 간명하게 圖式的으로

(40) 1988年 6월에 Canada의 Toronto에서 개최된 G7 즉 先進 7個國 頂上會談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된 것은 新興工業國家(NICs 또는 NIEs)들에 대한 國際開發責務分擔의 公公然한 要求이었음을 추가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살펴본다면 (i) 國際農業技術移轉에 관한 理論化된 理解, (ii) 國際農業技術移轉에 관한 經驗的 研究, 그리고 (iii) 國際農業技術移轉에 관한 實際經驗 등의 세가지 범주의 情報에 입각하여 導出된 一般的 次元의 戰略을 具體的인 個別狀況에 適用함으로써 實踐的 戰略이 定立되는데 이와 같은 戰略에 의하여 聯關的인 모든 關聯變數를 結合·活用하여 최대한의 效率的인 國際農業技術移轉의 성취를 기하게 된다.⁽⁴¹⁾ 물론 先發的 開發途上國을 源泉으로 하는 後發的 開發途上國의 農業技術移轉受領과의 聯關에서의 것이다.

극히 선택적인 第1의 一般的 戰略은 受領國으로서의 特定的 後發的 開發途上國의 農業技術移轉의 必要-知覺된 必要와 더불어 知覺되지 않은 必要도-를 總合的으로 決定하고 또한 “移轉可能性” 또는 “移轉性”(transferability)을 중핵으로 하는 妥當性(feasibility)의 檢定이 體系·分析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要請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潛在的 受領國의 公式的인 要請과 이에 대한 우리側의 肯定的인 反應이 先行되어야 한다. 이 경우 國利的인 考慮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은 再言을 必要로 하지 않으나 同時에 後發的 開發途上國에의 技術移轉을 통한 農業開發과 國家發展은 受領國과 供與國에게 있어서 共生的이라는 基本理念과 開發目的을 診斷하여 決定하는 것이 前提되어야 한다.

第2의 一般的 戰略은 實物移轉的인 性格의 農業技術移轉이 主宗이 될 것이지만 이것에만 멈추지 말고 研究支援的 또는 研究協力的인 戰略을 필요한대로 強化시켜야 한다. 다시 말하면 後發的 開發途上國으로 하여금 自力更生的으로 스스로의 農業開發을 持續的으로 펴나갈 수 있도록 支援하는 面을 도의시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바꿔 말하면, 技術移轉供與國인 先發的 開發途上國의 發議와 主導, 그리고 誘導에 의하여 受領國인 後發的 開發途上國의 問題를 그들의 專門家集團이 農業開發問題를 決定하고 解決하도록 同伴者的으로 共同的인 研究努力을 배풀어야 한다. 이와 같은 研究協力的인 技術移轉戰略은 供與國의 責務를 가일층 무겁게 하며, 또한 知的 및 技術的 裝備를 높은 水準으로 갖추지 않으면 안되는 課題를 안겨준다.

第3의 一般的 戰略은 農業技術移轉에 있어서 가장 基本的이고도 중요한 것은 결국 受領國인 後發的 開發途上國의 農業開發을 위한 人間資源(human resources)의 發展이라는 認識에 입각하는 企劃과 實踐이다. 그러나 人間資源開發戰略은 受領國에만 限局되는 것이 아니고 供與國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受領國의 人間資源開發을 떠맡는 供與國의 人間資源開發도 “國際的 訓練者”(international or expatriate trainers) 또는 “國際的 農業變化促進

(41) 이와 같은 國際農業技術移轉의 戰略에 관한 圖式的 概念化는 Rogers의 家族計劃傳達媒介에 관한 것에서 援用·適用한 것임(Everett M. Rogers,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Family Planning*, The Free Press, 1973, pp. 28-33).

者”(international or expatriate agricultural change agents)의 면에서 必要不可缺하다. 따라서 開發援助의 경우 受領國의 專門人力을 現地에서 또는 供與國에 招請하여 訓練教育시키는 것만을 排他的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供與國側, 즉 先發的 開發途上國의 農業技術移轉 專門家(agricultural technology transfer experts)의 教育訓練을, 예컨대, (i) 專門의인 技術移轉技法, (ii) 일반적으로 여러가지로 낮은 水準의 受領國의 專門家와 一般人과 더불어 함께 일하는 能力, (iii) 異文化的 내지 文化橫斷的(cross-cultural)인 狀況下에서의 生活 및 活動을 위한 適應能力과 技術, 그리고 (iv) 農業開發을 위한 技術移轉受領國의 農業 및 直接 間接으로 연관되고 또한 必要한 情報 등에 關하여 적당하게 이수시켜야 하는데 두말할 나위도 없이 自然科學的 또는 技術學的인 것을 前提로 한 것이다. 適切한 誘引下에 美國의 “平和奉仕團”(Peace Corps), 日本의 “青年海外協力隊”(Japan Overseas Cooperation Volunteers), 그리고 불란서의 “企業服務志願隊”(VSNE) 등과 같이 未來指向的인 國際農業技術移轉 專門家を 實際的인 奉仕와 더불어 양성·확보하는 國家計劃도 企劃·實踐되어야 한다.

第4의 선택적인 戰略은 海外農業移民(overseas agricultural immigration)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日本이 歷史적으로 이룩한 自國民의 海外農業移住의 成果는 가히 세계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오고 있다.⁽⁴²⁾ 이와 같은 國際的인 農業移民은 國際農業技術移轉的인 意義도 매우 크나 기실에는 보다 次元이 높은 多目的的인 戰略으로서 특히 國際化時代에 접어든 오늘날 우리와 같은 경우 國家政策的인 중요한 戰略으로서 그의 중요성을 아무리 크게 평가하여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試行錯誤的인 農業移民의 日淺한 歷史를 지니고 있지만 養蜂移民과 같은 경우는 先進國을 주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매우 成功的이며 고무적이라고 보겠다.⁽⁴³⁾

더 나아가 第5의 國際農業技術 移轉戰略은 國際分業을 특히 先進國과 이룩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先發的인 國際農業技術 移轉供與者이자 經濟的 富國인 先進國과 後發的인 國際農業技術移轉 供與者이자 經濟的 富國이라고 볼 수는 없는 先發的 開發途上國은 水平的 및 垂直的인 分業의 協力을 보아야만 한다. 물론 이와 같은 國際農業技術移轉 또는 後發的 開發途上國의 農業開發의 企劃과 執行에 있어서의 國際的 分業은 先進國 相互間과 先發的 開發途上國 相互間에서도 있게 된다. 예컨대 크나큰 資金이 소요되는 大型프로젝트

(42) 後發的이나 현재 거대한 國際開發援助, 따라서 國際農業技術移轉의 供與國으로 되어 있는 日本의 경우 이를 위한 거대한 國家機構인 “日本國際協力事業團”(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의 6大範疇의 事業領域 중의 하나가 “移住事業”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海外農業移民의 世界史的인 業績과 더불어 적시하여야 한다.

(43) 柳永秀, 『韓國養蜂移民의 現況과 展望』, 韓國養蜂協會, 1986.

를 技術移轉할 경우 資金的 支援은 先進國이, 그리고 實際執行은 先發的 開發途上國이 떠맡는 것 따위이다. 그리고 되풀이하여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南南協力的인 次元에서 先發的 開發途上國이 누리는 有利性을 活用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이미 圖式的으로 본 바 있는 “先進國+先發的 開發途上國→後發的 開發途上國”인 것이다.

마지막 第6의 예시적인 一般的 戰略은 民間的 次元의 國際農業技術移轉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政策과 實踐이 政府次元에서, 그리고 學界, 研究機構, 그리고 民間的 機構와 企業 등의 次元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예시된 一般적 전략이 國家間的 것을 지나칠 정도로 意識한 것인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고 이른바 “非政府機構”(non-government organizations: NGOs)의 參與가 不可避하다는 것을 補完的으로 강조하는 것이다.⁽⁴⁴⁾

이상에서 우리나라 農村指導事業의 國際的 次元을 특히 後發的 開發途上國을 염두에 두고 一般적인 國際農業技術移轉의 틀로써 간략하게 살폈다. 國內的인 農村指導事業의 發展과 더불어 國際的인 農村指導事業이 開發援助的인 次元에서 期待・要請되고 있으며 또한 企劃・實踐의 發議도 이미 보고 있는 터이다. 구태여 재론을 할 필요도 없이 農村指導事業은 農業技術移轉 또는 農村技術移轉이다. 國際技術移轉으로 받아들여졌고 또한 體制建設을 꾸준히 이룩하여 온 우리나라의 農村指導事業體系는 비록 國內的인 發展의 課題를 적지 않게 안고 있지만 國際的으로는 比較論的 視角에서 매우 成功的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⁴⁵⁾

V. 맺 는 말

改良的 接近 또는 改善的 接近의 테두리 안에서 農村開發의 3大原型⁽⁴⁶⁾의 하나인 農村指導事業 또는 農業 및 農村技術移轉事業의 發展의 課題는 오늘날 兩面에 걸쳐 있다. 하나는

(44) 國際農業協力에 있어서의 非政府機構의 重要性내지 意義, 그리고 이들의 活動課題에 관한 것은 비록 日本의 경우의 것이지만 다음을 參照할 것: 室靖, 「NGO活動의 現狀と課題」, 『國際農林業協力』, Vol. 6, No. 1, 1983, pp. 25-30.

(45) 後發的 開發途上國의 農業開發技術移轉의 重要源으로 부상되기 시작한 先發的 開發途上國으로서 우리나라는 여타의 先發的 開發途上國과는 크게 구별 되는데, 예컨대, 集村的인 小農을 支配的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後發的 開發途上國과 共通性을 지니는 것으로서, Brazil 등과 같은 大規模의 農業도 아니고 Hong Kong과 같은 非農業的인 섬나라도 아니며, 두드러지게 國際的 黑字經濟를 보이고 있다. 특히 農村指導事業의 경우, 農村振興廳體系는 世界的으로 成功的인 模型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46) 農村開發의 傳統的이자 古典的인 3大原型은 (i) 農村指導事業, (ii) 地域社會開發事業, 그리고 (iii) 農業 또는 農村協同組合이 된다.

國內的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國際的인 것이다. 전자도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바야흐로 후자, 즉 國際農業技術移轉, 다시 말하면 國際農業 및 農村開發技術移轉도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을 止揚하고 하나의 巨視的인 테두리에서 이와 같은 兩面的인 우리나라 農村指導事業의 發展의 課題를 개괄적으로 기술한 셈이다.

그러나 우리의 本格的인 農村指導事業이 추진되고 그 課題가 企劃・執行되어온 지도 30年 안팎이 되지만 本格的 내지 總體的인 體系的 評價努力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農村指導事業의 본고장으로서의 美國의 경우⁽⁴⁷⁾와 크게 대조된다고 하겠다. 본고는 産業社會로의 우리의 進入과 이에 照應되어야 할 發展的인 國內的 農村指導事業課題와 國際的인 새로운 責務의 課題를 극히 선택적으로 그리고 總括的으로 살폈기 때문에 여러가지의 문제점이 인지될 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國內的이건 國際的이건간에 모든 企劃的 開發事象의 基底를 이루고 있는 結論的인 命題만을 한 가지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

새로운 技術, 다시 말하면 革新의 研究開發과 研究開發된 새로운 技術 또는 革新의 移轉傳播의 중요성에 대한 예누리 없는 재인식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새로운 기술 또는 革新의 創出(generation)과 活用(utilization)이 된다. 이 두가지, 獨立的으로 보이기도 하는 과정은 거의 不可分離的으로 相互構造化되어 있다. 그런데 農村指導事業은 주로 傳播・移轉 또는 活用の 側面에 지배적인 관심을 둔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기술 또는 革新의 研究開發 또는 創出은 “所與의 것”으로 前提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農村指導事業과 農村研究開發事業 또는 試驗研究事業은 農村振興廳體系에 의하여 統合되어 있는 터이므로 가장 바람직한 特徵을 지닌 것으로 國內外的으로 評價되고 있다.

보다 차원을 낮춰서 현실적으로 볼 때에 國內的 및 國際的인 農村指導事業은 그 자체가

(47) 筆者가 入手하고 있는 CES의 週期的인 評價發展研究書를 時系列的으로보면 다음과 같다.

- (a) John A. Hannah, et al., *Joint Committee Report on Extension Programs, Policies and Goals*,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Association of Land-Grant Colleges and Universities,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8.
- (b) Bryant E. Kearl and C.B. Copeland, eds., *A Guide to Extension Programs for the Future*, The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 North Carolina State College, 1959.
- (c) Herbert R. Albrecht, et al., *A People and A Spirit*, A Report of the Joint USDA-NASULGC Study Committee on Cooperative Extension, Printing and Publications Service, Colorado State University, 1968.
- (d) Science and Education Administration-Extension,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Evaluation of Economic and Social Consequences of Cooperative Extension Program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0.
- (e) Laverne B. Forest and Karen R. Eriksson, *Extension in the '80s Surveys: Major Findings and Implications*, Program Development and Evaluation,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University of Wisconsin, 1983.

매우 복잡하고도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한 부류 또는 집단의 인간이 다른 부류 또는 집단의 인간의 知識, 態度, 그리고 行動에 修正내지 變化를 가져오게 하는 것을 기본책무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農村指導事業에 있어서는 그가 상당정도로 統制할 수가 있는 體系內部에 있어서도 많은 이질적인 規制變數가 있게 되고 또한 그가 所與의 것으로 받아들일 뿐 決定的인 統制力을 행사하지 못하는 體系外部的인 規制變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國內的으로나 國際的으로나 農村指導事業의 自己正體性, 다시 말하면 農村開發을 위한 必要條件的인 여러가지 寄與政策變數중의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農村指導事業, 즉 農業 및 農村技術移轉에 관한 多學問的 내지 體系的 研究에 곤장 착수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특히 農村振興廳에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가칭 “農村技術移轉研究所”를 창설하는 것은 國內的 및 國際的인 農村指導事業의 發展的 課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서도 實用的으로 꼭 필요하다. 그러나 農科大學,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大學校 農科大學에 「農村社會學科」가 창설·활용될 때에 이와 같은 研究所는 效率化를 期할 수가 있을 것이다.